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23호 1판 (음력 3월 8일)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여소야대 … '녹색 태풍' 호남 23석 휩쓸었다

<국민의당>

4·13 총선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국민의당 권은희 광주 광산 을 후보가 14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화환을 목에 걸고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13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확실'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28석 중 광주 8석 싹쓸이…더민주 3석·새누리 2석

새누리 126·더민주 119·국민의당 38석 예상(새벽 1시 현재)

국민의당 정당 투표율 더민주 앞서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오만한 여권을 심판하고 제1야당에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의당에 제3당의 '캐스팅 보트'를 주는 황금 분할의 선택을 했다.

14일 새벽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이 67.8%를 기록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109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06곳, 국민의당은 25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2곳, 무소속 후보는 12개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 13석, 정의당은 4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26석 내외를 얻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현재 의석수인 146석보다 20석이나 적은 것으로, 원내 제1당은 유지하되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게 됐다. 선거 초반만 해도 180석 이상을 거론하면서 공천 파동을 거듭한 여권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19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선거 초반만 해도 야권 분열로 인해 상당한 고전이 예상됐으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을 발판으로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호남에서의 참패는 뼈아픈 지점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압승을 바탕으로 38석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 초반만 해도 원내교섭단체 유지 여부마저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으로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당 투표에서 더민주와 같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 제3당을 넘어서는 위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으며 1996년 15대 총선에서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이후 20년 만에 3당 체제가 정립돼 정치 지형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녹색 바람'을 앞세워 창당 2개월여 만에 압승했다. 국민의당은 광주 8석을 석권한 것은 물론 전남에서 8석, 전북에서 7석 등 호남에서 총 23석을 차지했다. 반면 더민주는 광주에서 전멸한 것은 물론 전남 1석, 전북 2석에 그치는 등 말 그대로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전남 순천(이정현)과 전북 전주 을(정운천)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으로 정국의 키를 잡게 됐으며 추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민주는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 상실에 따라 제1야당이지만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에서는 더민주 심판을 통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대한 교차 투표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당 색깔로 본 판세

■ 20대 총선 정당별 1위지역 비례대표 예상 의석 (01시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합계 (300석)
새누리당	109	17	126
더불어민주당	106	13	119
국민의당	25	13	38
정의당	2	4	6
무소속	11		

총선 이후 정국 … 권력지형 재편 격랑 속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동력 약화

여당 참패와 야당 승리의 성적표를 낸 4·13 총선 이후 여야는 내부 권력지형이 재편되면서 격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하고, 조기 레임덕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대선과 맞물려 차기 유력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여야를 넘나드는 복잡한 정계개편이 시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7년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혈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경우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통합에 대한 진보시민사회진영의 압박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견된다.

더민주는 비록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호남 참패 책임을 놓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찬반 논란이 이는 등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목표치 이상의 의석을 확보, 20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 안철수 대표도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의 주축이 호남 국회의원들인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안 대표 측과 호남 세력의 대립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jkpark@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국민의당 김성환 당선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14일 0시20분 현재 개표가 80% 이뤄진 결과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가 52.98%로, 더민주 홍진태(24.91%) 후보와 무소속 양혜령(22.10%) 후보를 앞서고 있다.

여수시 라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에서는 개표율이 62.02%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원용규 후보가 40.95%로, 더민주 강현태(34.21%) 후보를 앞서고 있다. 고흥군 나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는 개표율 79.29%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 송인숙(34.99%) 후보와 더민주 박철수(33.14%)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지면안내

광주·전남·북 격전지 당선자 ▶2
호남 녹색 태풍 배경과 의미 ▶3
호남 투표율 왜 높았나 ▶4
화제의 당선자 7인 ▶5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의 각오 ▶6
광주·전남·북 당선자 얼굴 ▶7
지역구 당선자 얼굴·전국 판세 ▶8·9
총선 첫 투표·이모저모 ▶1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심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_2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5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238g/km
•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심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심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